

연구노트

- 재난 피해 여성에 대한 복구 및 지원 방안
송효진·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강민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Post-2015 개발체제에서 젠더의제 분석
김은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재난 피해 여성에 대한 복구 및 지원 방안

송효진,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피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재난연구에서는 이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재난의 피해에는 기존의 남성과 여성과의 노동분업, 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의 기존의 젠더 간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가 반영된다. 재난의 위험은 젠더, 인종, 계층, 연령등 사회적인 위계에서 취약한 계층일수록 위험효과가 크다(social vulnerability approach). 여성의 경우 재난에 대한 취약한 반면(vulnerability), 위기로부터 벗어날 회복능력은 낮으며(Byrne, 1995), 재난구호 물자의 배분에 있어서 여성 특히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이 불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의 141개국의 재난 과정에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사망률이 더 높았는데, 이것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남성의 지위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쓰나미로 인한 피해 발생시,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에서는 남성 생존자의 비율이 여성 생존자의 비율의 3~4배였는데, 기본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수영이나 기어오르기(climbing)등의 생존기술이 부족한데다 여성은 위기 상황 시에 자녀나 노인을 돌볼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남녀간의 차이의 발생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 또는 사회속 젠더 관계를 반영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결합과 그것들 간의 상호관계에서 기인한다(Ariyabandu, 2009:5). 하지만 젠더 변수는 그간 재난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유효한 변수로서 관심을 끌지 못해왔다(Bolin et al., 1998: 27-28). 재난 연구에서 젠더 간 차이에 대한 심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UN에서는 재난피해로부터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모든 재난 관리 계획에 성주류화 관점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 및 취약성에 의해, 재난발생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재난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한 재난대응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1) 재난 여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복구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2) 대형재난 발생 후 대응·지원 단계에서 피해자 등 유가족, 특히 여성의 필요사항을 정부 측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연결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주요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1) 젠더관점에서 재해에 관한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와 관련한 이재민 재해구호업무를 규정한 「재해구호법」의 검토, 2) 재난발생시의 위험노출과 위기대처능력과 위험에 있어서의 성별차이에 대한 선행연구분석(Capacities and vulnerabilities approach), 3) 재난발생시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구를 반영해주는 해외사례 연구, 4) 재난발생시 여성지원에 대한 젠더분석(gender analysis), 5)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재해구호 물자의 배분방안 연구(Targeting of aid and delivery mechanisms) 등이다.

3.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젠더관점에서 재난발생의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 재난대처, 발생 이후 피해복구시의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모든 연령집단과 성별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난위험감시체제의 정비 등, 기존 본격적인 선행연구가 없었던 젠더관점의 재난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재난복구시 남성과 여성의 평등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재난복구 지원시 지원되는 자금과 물자의 배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작동되는 방식인 거버넌스 재편방안, 여성의 위기대처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재난피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난 여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복구 및 지원대책의 마련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과 중앙정부 기관 등을 연결(Liaison)하고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통로의 마련방안 제시함으로써 젠더관점에서의 재난정책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강민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TF 사업소개

TF 개요

-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Task Force on Gender Parity and Empowerment of Women)는 여성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양성평등 실천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 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100여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임.
- TF는 2014년 상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3년간 운영하며, 여성고용 확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여성대표성 제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임.

TF 필요성

-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등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 특히 정부가 마련한 법·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에 정부는 사회 각 분야를 망라한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를 구성하여 실천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세계경제포럼(WEF)*과도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14.1.21 스위스 다보스, MOU 체결).

* 세계경제포럼은 각 국의 성격차(Gender Gap)를 줄이기 위해 '12년부터 일본, 터키, 멕시코에서 100명 이내의 각 분야 대표로 구성된 TF 운영을 지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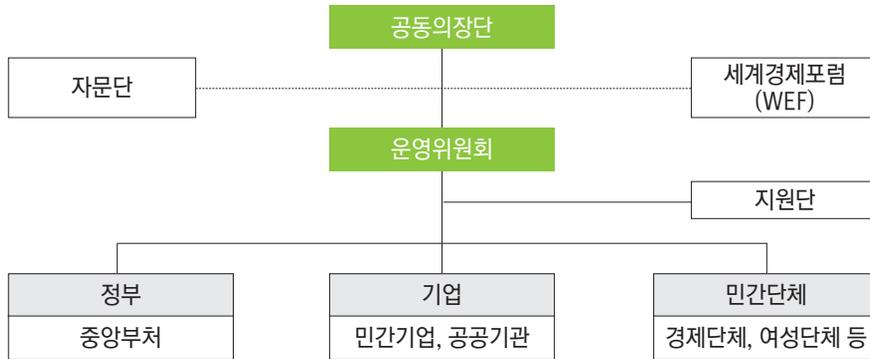
TF 구성

- 정부, 기업(민간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실천을 선도할 수 있는 사회 각 분야 대표 기관 100여개로 출발하고, 앞으로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합류할 예정임.
- 10여개 기업·기관으로 공동의장단을 구성하고, TF 운영 지원을 담당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지원단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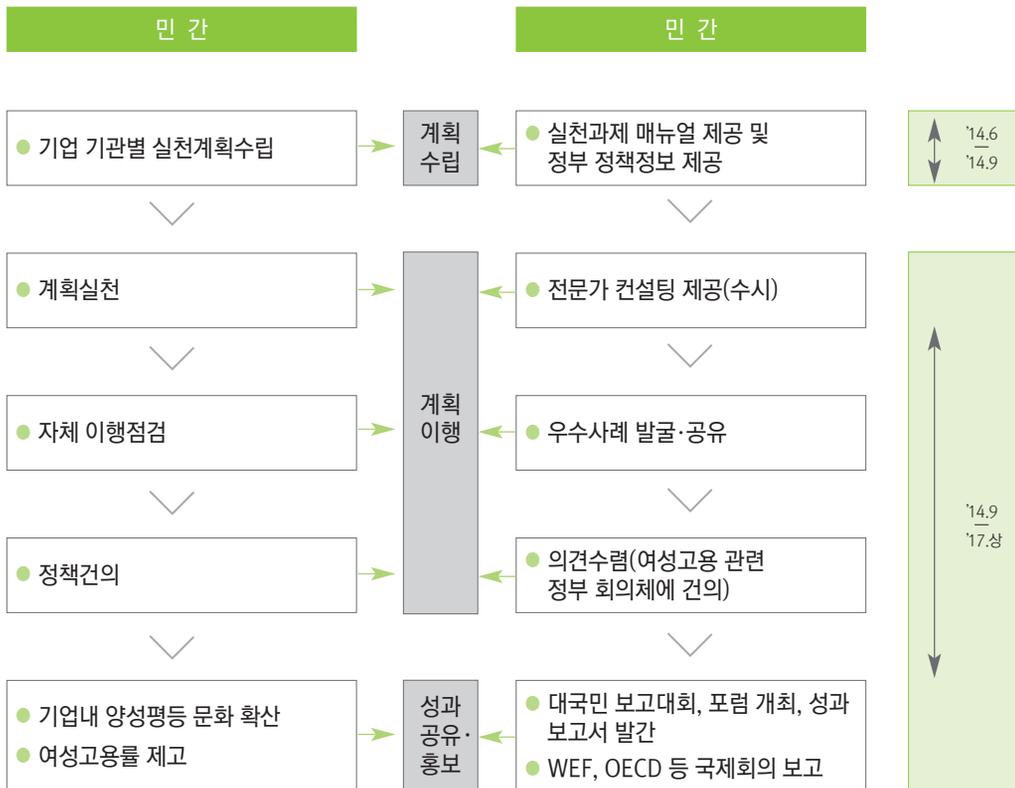
* 2014년 현재 공공기관 20개, 대기업 38개, 중견·중소기업 16개, 민간단체 19개, 연구기관 9개로 총 102개



TF 조직도



TF 주요 활동 내용



2. 컨설팅 사업소개

컨설팅 개요

- 목적 : 정부, 기업(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여성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실천계획 수립·이행을 지원
- 대상 : 컨설팅을 신청하거나, 설문조사 결과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기관
- 내용 : 개별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행 대안을 제시
 - 기업·기관의 여성인재 활용 및 양성평등 수준 진단, 실천계획 검토 및 권고, 실천계획 이행 방안 점검
 - 기업·기관의 여성인재 활용,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
- 신청 : 설문조사 시행시, 포럼 또는 세미나 시, 실천계획서 제출시에 컨설팅 신청서 작성·제출



- 시기 : 2014년 7월~11월 중 수시

컨설팅 결과 요약

- 각 기관별 컨설팅 결과보고서 산출 및 실천계획 우수사례 발굴
- 올해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신청한 기관은 대부분 공공기관으로, 경영평가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대부분이었음. 반면 민간기관의 경우에는 컨설팅 없이도 여성인력 활용을 잘하고 있거나, TF 활동 자체에 적극적이지 않은 등의 이유로 참여가 저조했음.
 - 공공기관 특성 : 대부분 제도는 모두 도입되어 있었고 복지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보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조직문화가 여전히 견고하여 TF의 민간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여성인력을 공채로 채용한 역사가 길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조직문화로 인해 육아기 여성들이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결과적으로 여성대표성이 상당히 낮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임원진의 의식수준도 낮았음. 또한 방만경영 방침들이 여성관련 또는 일가정 양립 정책과 배치됨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였음.
 - 민간기업 특성 : 대부분 대기업으로, 여성인력 활용 및 일가정 양립은 정부정책을 앞서가는 수준이었음. 이런 수준이 가능한 것은, 더 이상 여성인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과 필요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었음.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성별 이외에도 세대, 직무, 입사 시 조직의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향후에는 양성평등을 넘어서서 '다양성 관리'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TF지원단 주요 행사 및 컨설팅 실시 내용

* 연구기관 1개, 공공기관 8개, 민간기업 6개(글로벌 기업 2개) 총 15개 기관 대상 총 16회 컨설팅 실시(1개 기관은 2회 컨설팅)

일시	내용	비고
6월 17일	발족식	TF 참여 기업·기관의 대표자 참석
7월 11일	포럼	참여기업·기관·단체의 TF 실무담당자 등 참석
7월 11일	자문단 간담회	컨설팅 자문단 18인 참석
8월 5일	1기관 컨설팅	연구기관
8월 6일	2기관 컨설팅	공공기관
8월 11일	3기관 컨설팅	공공기관
8월 12일	4기관 컨설팅	공공기관
8월 20일	5기관 컨설팅	공공기관
8월 22일	월례 세미나	주제: 구성원별 중점 실천과제 실행방안
9월 25일	6기관 컨설팅	공공기관
9월 26일	월례 세미나	주제: 여성대표성 제고 방안
10월 6일	7기관 컨설팅(1차)	공공기관
10월 8일	8기관 컨설팅	공공기관
10월 10일	7기관 컨설팅(2차)	공공기관
10월 22일	9기관 컨설팅	민간기업
10월 23일	10기관 컨설팅	민간기업(글로벌 기업)
10월 24일	11기관 컨설팅	민간기업
10월 31일	월례 세미나	주제: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및 활성화
11월 6일	12기관 컨설팅	민간기업
11월 7일	13기관 컨설팅	공공기관
11월 12일	14기관 컨설팅	민간기업
11월 13일	15기관 컨설팅	민간기업(글로벌 기업)
11월 18일	월례 세미나	주제: 여성고용확대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12월 16일	성과보고회	우수사례 발표 등

Post-2015 개발체제에서 젠더의제 분석

김은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은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곽서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영숙 |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이 연구는 Post-2015 의제 수립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젠더적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 MDGs체제에서의 젠더의제에 대한 페이미니스트들의 평가와 함께, Post-2015 개발의제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소개하는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MDGs를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국제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젠더 의제를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둘째, UN Women이 Post-2015의 다양한 의제 가운데, 젠더의제가 독자적 목표(stand-alone goal)임과 동시에 범분야 이슈로서 모든 의제에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한 2013년도 보고서의 프레임에 따라, 각 영역별로 젠더의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정리하였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Post-2015 체제에서 성 주류화 전략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한국 사회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은 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였으며, Post-2015와 관련한 각종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문서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였다. 대표적 문서로는 UN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WG)의 보고서, UN Women의 Rio+20 보고서(The Future Women Want: A Vi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ll, 2012), 그리고 젠더 의제가 SDGs에 포함되는 방식을 논한 UN Women의 보고서(A Transformative Stand-Alone Goal on Achieving Gender Equality, Women's Rights and Women's Empowerment: Imperatives and Key Components, 2013) 등이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장에서는 국제사회의 개발 규범이 SDGs로 변화해가는 동향, 여성주의자들의 SDGs에 대한 지지, 그리고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2장에서는 MDGs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MDGs 체제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다루고, SDGs 프레임워크로 전환되어가는 단계에서 국제사회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젠더의제와 관련하여 어떤 구제



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MDGs와 SDGs 프레임워크에서 젠더의제의 외형이 어떻게 확장되고 구체화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UN Women(2013)이 강조한 세 가지 영역, 즉 1)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2) 역량과 자원, 3) 여성의 목소리와 리더십, 참여의 세부내용을 중심으로, 북경대회(1995)에서부터 MDGs(2001), 그리고 그동안 UN CSW에서 검토한 주제분야 이슈에 대한 결의사항들을 살펴보면, 세부적인 주제의 젠더의제가 변화되고 개발된 상황을 검토하였다. UN Women(2013) 보고서는 여성차별의 구조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젠더관계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세 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방식이 여성 이슈에 대해 포괄적이면서도 동시에 세부적인 분석을 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이 틀을 적극 활용하였다.

4장에서는 Post-2015 프레임워크에 성 주류화 전략이 어느 정도 통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MDGs를 평가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의견을 모아, 향후 Post-2015에서 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방안들로 어떤 내용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 주류화 전략은 Post-2015 프레임워크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프레임워크에서 한국의 여성정책, 나아가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6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
Beijing+20와 Post-2015 체제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회와 과제

2014. 12. 16	프로그램
13:00~13:30	등록
14:00~15:00	기조1. 북경행동강령에서의 약속 실현 : Post-2015 개발체제에서의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적극적 아젠다 수립 Emily Esplen, OECD 개발협력국 양성평등 및 여성권리 정책 선임분석관 기조2. Post-2015 체제와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Anna-Karin Jatfors,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프로그램 담당관
15:00~15:20	질의응답
15:20~15:40	휴식
15:40~16:40	사회 : 신혜수, 한국유엔인권정책센터 대표 발표1. 아태지역 Beijing+20 이행 리뷰 Cai Cai,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부장 발표2. 시민사회관점에서 바라본 Beijing+20와 Post-2015 개발체제 Tessa Khan,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 프로그램 담당관 발표3. Post-2015와 아태지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한국의 역할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팀장
16:40~17:10	토론 최은정,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정책센터장
17:10~17:30	종합토론 및 폐회

이번 수시연구는 2015년을 앞둔 시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과제로 수행되었으며, 2015년 CSW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2014년 12월, [제6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Beijing+20와 Post-2015 체제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회와 과제](2014. 12.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라는 국제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국제 전문가들 및 국내 전문가들과 공유되었다.